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너희 자신을 신의 조력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언제나 그렇듯이 신의 조력자라고 불리는 협조적이고 쉬운 요기 자녀들을 보며 매우 기쁘다. 신의 조력자는 신 아버지가 준 과제, 즉 봉사를 하느라 늘 바쁘게 지내는 자다. 신이 그들에게 준 봉사를 하며 바쁜 데 대해서도 역시 자녀들은 특별한 도취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너희는 그 과제를 너희에게 준 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뭔가 물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신으로 하는 그 봉사는 신이 너희에게 준 과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지시를 직접 내려준 아버지를 늘 의식하면서, 너희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특별한 과제는 특별한 인물에게서 받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이에게 수행할 과제를 준다면 그 사람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쉽고도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기억할 것이다. 원하지 않아도 그 대통령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아버지가 이 과제를 수행하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너희가 이 과제를 내려준 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이처럼 기억을 쉽게 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신의 조력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비록 그들은 그 말에 들어있는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뭇잎 하나만 흔들려도 그 잎을 움직이게 만드는 분은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안다, 즉 나뭇잎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드라마에 따른 것임을 너희들은 안다. 이 얘기는 물리적인 나뭇잎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칼과 나무의 첫 번째 잎인 너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합류시대에 있으면서 황금시대의 잎인 너희들은 모두, 쫓덩이 같던 데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존재들로 바뀌었다. 살아 있는 잎인 너희들은 모두 지금 이때에 아버지에 의해서 직접 움직여지고 있다. 아버지의 지시는 “아버지의 생각이 곧 너희의 생각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 하나하나, 말 한 마디 한 마디, 행위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것들과 같아야 한다. 즉 너희들 모두 이 슈리마트에 따라서 생각을 한다. 지금 이때에 잎인 너희들 모두 아버지의 고귀한 지시에 따라서 매 순간 순간 움직여 나가고 있다. 그는 나뭇잎 하나하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즉 그는 잎인 너희들 모두가 전진하게 만들고 있다. 너희가 혹시 그의 슈리마트에 의하지 않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낭비적인 생각일 것이다. 이처럼 이 말은 신봉의 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합류시대에 대한 칭송의 말이다. 잎인 너희들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즉 너희들은 아버지의 슈리마트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길에서 움직여 나아가고 있지? 너희에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이 아직 까지도 너희에게 어려우냐? 아버지가 너희의 짐을 모두 가져갔거늘 어째서 너희가 끊임없이 날고 있지 않느냐? 가벼운 것은 끊임없이 높이 난다. 너희의 모든 생각이 아주 가벼워져서, 아버지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의 생각을 하게 만들면 너희는 그 생각을 하고, 그가 너희를 움직이게 만드는 대로 전진할 것이다. 모든 이가 이 약속을 했고, 너희가 전진하게 만들어줄 것을 아버지가 보장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각에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아버지가 너희의 지각에 어떤 과제를 주었는지 아느냐? 너희의 지각이 앓을 곳은 아버지 옆이고, 너희의 과제는 세계 봉사다. 너희는 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그가 앓혀주는 곳에 앓겠고 그가 움직여주는 대로 너희가 움직여 나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이 너희의 몸에 대한 것이냐, 너희 지각에 대한 얘기냐? 몸과 더불어 너희가 마음도 역시 주었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저 몸만 주었느냐? 너희는 바바가 시키는 대로 몸으로뿐 아니라 지각으로도 역시 앓고 움직이고 행하고 먹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순수한 생각이 곧 너희들의 지각을 위한 음식이다. 너희는 바바가 먹으라고 주는 대로 뭐든 먹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낭비적인 생각이라는 음식을 섭취하느냐? 너희는 불순한 것은 아무것도 입으로 먹도록 허용되지 않는데, 어째서 너희 지각이 낭비적이거나 죄 되는 생각이라는 불순한 음식을 먹도록 너희가 허락할 수 있단 말이나? 그렇게 되면 뭐든 그가 먹여주는 대로 너희가 먹는다는 말이 거짓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언행이 일치되는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과 지각을 위해 이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쉬운 요기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뭔가를 말하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했다. 짐의 무게를 너희가 갖고 있지 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라는 짐 무게를 벗어나 자유로워지지 않고는 너희가 고귀한 단계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생각의 차원으로 슈리마트를 계속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애씀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밥다다는 많은 자녀들의 노력에서 계속 다양한 여러 자세들을 본다. 많은 수의 자녀들에게서 그는 하루 동안 많은 자세들을 본다. 그에게는 자동카메라가 있다. 과학자들은 모든 걸 다 서틀 리전에서 훑 내내왔다. 너희는 언젠가 서틀 리전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거기서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전부 다 이리로 가져오세요” 라고 할 것이다. 아버지가 묻겠는데, 너희는 그저 서틀 리전을 보기만을 원하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한 번 해보야겠습니다.) 일단 해보기를 원한다니, 너희는 그것에 대해 반신반의하느냐?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들을 전부 다 그리로 부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완전해지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주 쉽게 완성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동시대 이후로 너희들은 모든 걸 뒤섞는 갖가지 산스카르들을 길러왔다. 첫째로 너희들은 숭배에 모든 걸 섞어서, 예컨대 신인들에게 원숭이 얼굴을 달아놓았다. 너희는 경전들에 모든 걸 섞었다. 아버지에 대한 전기에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 대신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가정에서도 순수한 가정을 유지하지 않고 너희는 그 안에 불순함을 섞었다. 너희는 심지어 지금도 너희들 마음의 지시(만마트)를 슈리마트에 뒤섞는다. 뒤죽박죽 뒤섞인 탓에 너희들은 무거워진다. 순금은 무척 가볍지만, 뭔가가 섞이면 그것이 무거워진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계속 진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슈리마트에 너희들의 어떠한 것도 섞지 마라. 변함없이 가벼운 상태에 머물므로써 너희는 여기 이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서틀 리전의 모든 장면과 광경들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마치 이 세상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너희는 아주 또렷하게 경험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저 생각하는 힘, 마음, 지각을 너희 자신의 지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불필요하게 마음을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습관을 갖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가만히 있게 하려고 애써도 그것은 저절로 계속 달리고, 그러면 너희는 다시 또 노력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이 쓸데없이 내닫지 않도록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어떤 이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면서 미친 듯이 날뛰거나 제정신이 아니어서 통제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안정제를 주사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의 생각하는 힘을 제어할 수 없으면 몸이 없어지는 주사를 맞아라. 와서 아버지 옆에 앉아라! 그러면 너희의 생각하는 힘이 쓸데없이 제멋대로 굴지 않을 것이다. 바바 옆에 앉는 방법을 너희가 모르느냐? 바바가 너희들에게 준 유일한 과제는 그의 옆에 앉으라는 것 하나뿐, 다른 건 없다! 이것이 아주 쉽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각의 고삐를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것을 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너희가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이제는 낭비적인 일에 애써야 하는 데서 자유로워져라. 자녀들이 애쓰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자비를 느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들은 각자 와서 아버지와 같이 옥좌에 편안히 앉아 있어야 된다. 너희의 옥좌에 앉아 있으면서 신체기관들과 미묘한 기관인 너희 마음, 지각, 산스카르들 양쪽 모두에게 지시해라. 너희들 각자의 옥좌에 앉아 있을 때 너희는 그것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만일 너희가 옥좌에서 내려온 다음에 명령을 내리려고 시도하면 너희의 기관들은 너희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가시로 된 자리(지위)에도 격변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바는 너희에게 옥좌의 자리를 주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여전히 거기서 내려오느냐? 거기서 내려온다 함은 하인이 된다는 뜻이다. 누구의 하인이냐? 너희들의 하인의 하인이다, 즉 너희는 여러 가지 너희의 기관들의 하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힘들어서 노력해야 한다. 신의 하인이 되어라! 신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라. 너희의 하인의 하인이 되지 마라. 너희 옥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내려올 필요가 없다. 아버지는 너희를 옆에 앉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뭘 하느냐? 주님의 합류시대의 왕비들이 되지 않고 너희는 노예들이 된다. 그러니 참된 주님의 진정한 아내가 되고, 노예가 되지는 마라. 한결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의 시선도 쏠리지 않는다. 그러니 마야가 앞에 올 때는 너희의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너희의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라, 그러면 노예들 모두가 너희들의 시중을 들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너희가 뭘 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오늘부터는 애쓰는 데서 한 걸음 물러서라. 아버지 옆에서 끊임없이 너희의 옥좌에 앉아 있는 쉬운 요기로 지내라.

오늘 구자라트와 인도르에서 온 자들이 여기에 왔다. 그러니 너희의 베일 뒤에 머물러 있어라, 즉 집 안에(영어로 ‘indoor’) 머물러 있어라. 인도르에서 온 자들은 한결같이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밖으로 나오지는 않겠지? 각 지구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 구자라트에서 온 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구자라트에서 온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를 가득히 채워서 빨리 서틀 리전에 가서 편안히 앉아 있어야 된다. 때에 따라 아버지 브라마는 지금 자녀인 너희들 모두를 부르고 있다. 구자라트 출신인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구자라트 출신들은 목소리가 큰 “마이크”들을 데려와야 한다. 물리적인 “마이크” 말고, 살아있는 “마이크”들 말이다. 너희가 데려오는 마이크 세트는 계시의 소리를 들릴 수 있게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해야 한다. 앗차. 인도르 지구에서 온 자들은 뭘 하려느냐? 세상의 멸망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그렇게 강력한 TV 세트를 인도르 지구에서 데려와라. 너희가 뭘 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그들의 경험이라는 TV 세트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파괴와 수렴을 비전으로 볼 수 있게 할,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라. 그러니 양쪽 지구의 너희들 모두 다시 올 때까지 그런 세트들을 준비해라. 앗차.

그런 신의 조력자들에게, 애씀을 벗어나 한결같이 자유로운 자들에게, 생각과 행위에 중요한 의미가 가득한 자들에게, 모든 생각과 행위가 아버지의 슈리마트에 따라 부합되는 자들에게, 말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동반자인 그런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특히 선생들을 위한 아비약트 밥다다의 다정하신 말씀.

너희 선생들은 어느 과목에 특별히 노력해야 하느냐? 봉사할 줄 아는 자녀인 너희들은 어떤 깊고도 미묘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해야 하는 미묘한 노력은 너희의 생각을 점검하는 것이다. 너희는 생각 속에서 기억과 봉사의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너희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강력했느냐? 너희는 세계의 시혜자이니, 봉사할 줄 아는 너희 자녀들은 낭비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은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다. 온 세계 전체가 너희를 본뜨고 있다. 너희의 생각이 단 하나라도 낭비적이면 모든 이가 다 그것을 본뜰 것이다. 너희는 그저 생각 하나를 낭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남들이 각자의 생각을 낭비하게 만든 도구가 된 셈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의 낭비의 계좌를 끝내라. 오늘날에는 과학기기로 마음의 안정성을 측정한다. 그런 실험이 런던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은 과학의 계기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매 발걸음마다 너희를 체크하는 기구들이 필요하다. 그들이 계기들을 항상 갖고 다니다가 체크해야 할 시간이 되면 해당자에게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처럼, 봉사할 줄 아는 자녀인 너희들도 역시 언제나 너희 자신을 체크하는 기구들을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그저 달고 다니기만 하지 말고, 행동도 역시 그 이름에 걸맞게 해야 한다.

봉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 결코 낭비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낭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남들은 어떻게 뭘 하겠느냐? 남들은 죄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물론 너희들 각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만, 이제는 훨씬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너희들은 생각을 통해서도 역시 봉사해야 한다. 너희가 봉사에 생각의 힘을 쓰며 항상 바쁘면 그럴 때는 낭비가 자동적으로 끝난다. 오늘날에는 청년들의 에너지가 파괴적인 데로 쏠리지 않도록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집단에 이런저런 과제를 주어 그들을 바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빗물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댐을 지어서 그 물이 유용하게 쓰이게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생각의 힘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봉사하며 그것을 바쁘게 유지해라, 그러면 생각이 낭비되지 않고 강력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의 힘, 말, 행위, 지식 중 그 어떤 것도 허비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생각, 말, 행위, 그리고 모든 힘에 대해서 경제적이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어떤 가족이 알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도구인 너희 자녀들이 알뜰하지 않으면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저런 것은 한정된 가정인 반면 이것은 무한한 가정이다. 너희가 혹시 생각, 말,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지나 않은지 점검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하게 너희 자신을 바꾸어라. 너희가 가진 모든 보물을 알뜰하고 실속 있게 쓰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에 따라 처신하려고 미묘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들은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알지 않느냐? 너희가 물리적인 보물들에 대해 기록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묘한 것들의 기록부도 역시 만들어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구가 된 데서 그 실질적인 결실로 너희는 센터를 받았고 학생들도 받았다. 이제는 너희가 한층 더 전진해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은 너희가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에 따른 것이었다. 신봉자들과 보통사람들이 지금쯤은 너희의 발치에서 머리 숙여 절을 했어야 한다. 이제는 너희가 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여야 한다. 너희들은 또 아버지와 대등하다는 칭호도 역시 받았다. 원소들도 역시 너희의 능력에 따라 계속 너희

들의 하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너희가 발전해야 한다. 너희가 틀림없이 그러한 결실을 실제로 받을 테지만, 그렇더라도 너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너희는 마음을 통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남들에게 7일 코스를 가르치는 자들은 말을 통해서 봉사한다. 너희는 행동을 통해서도 역시 모두들 봉사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특기는 마음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 전문성을 채택해서 특별한 등수를 차지해라. 너희들 모두 만족하고 계속해서 충족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너희가 남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스스로 받은 지시에 따라 처신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은 그저 말만으로도 아니라 실제의 예를 가지고 학과목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높이뛰기를 아주 잘 했다. 이제는 너희가 뭘 하겠느냐? 높이뛰기를 한 다음에는 너희가 날아다니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몸 없는 단계에서 서틀 리전으로 끊임없이 날아가야 한다. 몸 없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계속 날아 다녀라. 앗차.

축 복: 고결한 노력을 함으로써 최종결과에서 1등을 차지하는,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라.

마지막 결과에서 첫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1) 마음속에 불멸하는 무관심을 지니고서 과거의 것들과 산스카르들의 씨앗을 태워버려라. 2) 암릿 벨라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신의 규율과 행동수칙들을 따르겠다고 맹세해라. 너희의 생각, 말, 관계, 연결을 통해 변함없이 위대한 기부자이며 자비로운 영혼이 되어 계속 기부하고 자선을 행해라. 그렇게 높이뛰기를 하려고 노력하면, 너희는 날아다니는 새가 되어 최종결과에서 넘버원을 차지할 것이다.

슬로건: 너희의 태도를 통해서 분위기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의 노력이며 봉사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